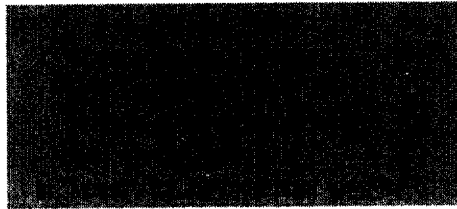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세계화' 논쟁

강경희(제주대학교 강사)



1990년대 들어 소·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탈냉전 국제질서의 형성으로 촉발된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globalización/mundialización)¹⁾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WTO 설립을 통해 더욱 심화되다가,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인다.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계에서도 지난 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세계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개발도상국가들 및 저발전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어왔다. 2001년 10월 28일~11월 2일에 과테말라의 안띠구아에서 열린 제 23차 라틴아메리

1) 플로레스 올레아(Flores Olea)와 마리냐로레스(Mariña Flores)에 의하면, '전지구화' 및 '세계화'로 번역되는 globalización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간 상호교류가 일반화되는 과정"이고, '세계화' mundialización "세계체제의 논리가 지리,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의 자본의 경향"이다(Flores Olea & Mariña Flores 1999, 11). 그러나 바로 에레라(Baró Herrera)는 두 개념을 동의라고 보, 다만 globalización은 앵글로색슨계 및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이, mundialización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Baró Herrera 1997, 3).

카사회학회(ALAS: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Sociología)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세계화와 새로운 대안의 등장. 라틴아메리카 비판사상의 당면과제” (América Latina: entre la globalización del sub-desarrollo y la emergencia de nuevas alternativas. Los urgentes desafíos del pensamiento crítico latinoamericano)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고,²⁾ 2002년 5월 6~10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29차 CEPAL(UN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요구로 “세계화와 발전(Globalización y desarrollo)”이라는 주제가 채택되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³⁾

I. 세계화: 이데올로기적 허구인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가

사회과학에서 세계화 개념은 경제, 금융, 정치, 문화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제반 현상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생산, 소비, 무역, 자본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금융 세계화는 현재 세계화 과정을 주도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금융시장의 탈규제 및 초국적화를 의미한다. 또한 정치적 세계화는 G7 국가들, UN, OECD, IMF, World Bank 등 세계권력의 중심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계의 정치구조를 동질화하려는 의도로, 문화적 세계화는 CNN, Hollywood, McDonalds, Coca Cola, Pizza Hut, KFC 등 초국적 기업과 대중매체들이 선진국,

2) <http://www.alas-sociologia.cl/1024/index2.htm> 참조

3) <http://www.eclac.cl> 참조. 멕시코 뿌에블라자치대학의 경제학부가 운영하는 인터넷연구소인 세계경제연구(REDEM: Red de Estudios de la Economía Mundial)도 2000년에 멕시코 뿌에블라, 2001년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2002년에 쿠바의 아바나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는 세계화 및 지역주의화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입장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 <http://www.redem.buap.mx/seminario.htm> 참조.

특히 미국의 문화, 규범 및 생활방식을 전세계적으로 전파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향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Baró Herrera 1997, 26-29).⁴⁾

삭스 페르난데스(Saxe-Fernández)는 세계화 개념을 '과학적 범주로서의 세계화'(globalización como categoría científica)와 '통속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globalización como ideología de la "versión pop")로 구분한다. '과학적 범주로서의 세계화'는 수세기에 걸쳐 역사적·경험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국제화'(internacionalización económica)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세계화 개념은 자본주의의 발전 및 팽창,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경험, 자본의 권력과 모순, 생산의 특화 및 국제노동분업,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등의 역사적 현실의 진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세계화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도 아니며, 역행할 수도 없는 현상도 아니다(... no es un fenómeno nuevo, inédito ni irreversible.)(Saxe-Fernández 1999, 9-10).

반면, '통속적 이데올로기로서 세계화' 개념은 지나치게 낙천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고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의 기업가,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세계화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며 세계 모든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구조와 동질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국민국가는 급속히 퇴진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통속적 이데올로기로서 세계화' 개념은 북미자유

4) UN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 '세계화'의 주요 의제로 노동, 환경, 테러리즘 및 마약 등에서의 세계화 과정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할만한 의제는 '노동력의 세계화'로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세계화 과거에 진행된 자본의 국제화 경향과 비교했을 때, 노동력 이동현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서구자본주의의 팽창과정은 유럽인의라틴아메리카 이주, 아시아인의 라틴아메리카 열대지방으로의 이주 등 대규모 인구가동이 동반되었던 반면, 현재의 세계화 과정에는 유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노동력의 이동 국민국가 정부의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Secretaría Ejecutiv de la CEPAL 2002, 20).

무역협정(NAFTA)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정부에 의해 활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 정부의 세계화 캠페인은 국민국가, 주권, 민족주의 등의 개념이 상호의존적 세계화의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임을 선전하면서, NAFTA 가입과 경제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 경제개혁만이 멕시코가 '제1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는 환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다(Saxe-Fernández 1999, 10-11).

빌라스(Vilas)는 '통속적 이데올로기로서 세계화'의 오류를 다음 여섯가지로 지적한다. 1)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다. 2) 세계화는 동질적 과정이다. 3) 세계화의 결과 모든 국가들은 경제, 문화, 복지 부문에서 균등하게 발전하게 된다. 4) 세계화는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5) 경제적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세계화로 이어질 것이다. 6) 세계화의 결과 국민국가는 급속히 퇴각하거나, 최소한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Vilas 1999, 70).

'통속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 개념은 기존 세계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고하게 하려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과, '몰역사적'(ahistoricidad)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 개념은 인류가 새천년의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국지적 경제위기들이 빈번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국가적·국제적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그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빌라스가 언급하듯이 '과학적 범주로서의 세계화' 개념, 즉 세계화가 14-15세기 이후 꾸준히 전개되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자본주의적 팽창과정의 결과로 출현했다고 보는 설명이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Vilas 1999, 70-72).

II.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 상호의존의 심화인가, 또 다른 종속인가.

이아니(Ianni)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라 볼 수 있는 '세계사회'(sociedad global)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세계사회의 등장은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아니에 따르면, 국가사회에서 세계사회로의 전환과 아울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립하던 양극체제는 다극화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심, 주변, 제국주의, 종속, 국가의 경제기적, 국가사회, 국민국가, 국가전략, 국가의 사회주의로의 길,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의 길, 국가혁명 등과 같은 개념들은 세계화 및 세계사회 시대의 도래로 이미 구태의연하며 불충분한 개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아니는 현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유리된 개념들은 결국 노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Ianni 1999, 20).

이아니에 따르면, 20세기의 주도적 정치구조를 형성했던 국민국가는 최소한 198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세계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세계사회 하에서 모든 국가, 민족, 계급, 집단, 개인들간의 상호의존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저발전국 및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들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나 민족은 세계화 과정과 세계사회의 형성을 철회하고자 역행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나 민족 등 낡은 개념들은 현실의 세계에서나 개념의 세계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Ianni 1999, 20-32).

플로레스 올레아와 마리냐 플로레스(Flores Olea & Mariña Flores)도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부 국민국가들의 활동은 증대되고 있지만,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상당수 국가들의 영향력은 약화되

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본다.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꾸준히 증대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내생산이나 대외수출이 주로 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기업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국민국가의 약화라는 냉혹한 현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민국가는 경제에 무관심한 자유방임국가가 되거나,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 국민국가의 경제는 정체되고 사회관계 및 정치구조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Flores Olea & Mariña Flores 1999, 266-267).

빌라스, 알론소, 바로 에레라 등은 ‘세계화’ 개념이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실상 및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 저자들은 세계화 과정이 객관적 현실이며 고도로 진전된 자본 국제화의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아니가 주장하는 바처럼, 국민국가가 점차 퇴각하고 있다거나 국민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주장이 국민국가의 영원불멸함을 의미하는 건 더욱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정책집행능력이나 경제개입방식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지배연합의 특징이나 사회세력들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Alonso 2002, 383).

다만, 이 저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세계화’ 개념이 그간 허구적인 ‘통속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확산되어 왔다는 점과, 국민국가의 퇴조 및 행위주체간 상호의존이라는 의미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정의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의 위상이나 세계화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세계화란 개념보다는 오히려 ‘제국

주의'(imperialismo), '양극화'(polarización), '종속'(dependencia)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옳는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선 알론소는 현대 세계자본주의가 포스트제국주의(postimperialismo)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제국주의'(imperialismo) 개념이 현재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자들은 상호의존적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국주의 경향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하거나 새로운 세계권력체로서 '제국'(imperio)이 출현했다고 주장하지만, 알론소는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 및 통치방식의 기본 형태는 19세기 초 제국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Alonso 2002, 9-10). 어떻게 보면, 세계화 과정은 자본관계 및 사회관계를 평등적이고 상호의존적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지배, 종속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일부 극소수 수혜자들만이 새로운 은행 및 금융체제, 생산구조, 시장제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실업, 불안전고용, 실질임금 저하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Alonso 2002, 384-385).

알론소의 주장과 유사하게, 빌라스는 세계화 과정이 다차원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됨을 언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간, 지역간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진행과정은 결국 일부의 지역과 국가들에게 경제발전, 사회복지, 기술진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나 국가들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해 오히려 경제 및 사회발전의 파국 및 퇴보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Vilas 1999, 71).

바로 에레라(Baró Herrera)도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극소수의 국가 및 초국적 기관들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반면, 대다수 지역, 국가, 계급, 개인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양극화' 개념과 관련해서 저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가 '남'과 '북'간 지리상의 오랜 경계를 허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양극화'는 '복수 국가들 사이에서의 양극화'와 '한 국가 내부에서의 지역간 양극화'라는 두 개의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aró Herrera, 1997, p.34).

한편, CEPAL은 세계화의 출현이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transformaciones cualitativas*)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 과정은 모든 국가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전략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더 많이 편입되고 세계화 과정에 적절히 편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EPAL은 동시에 세계화 과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서, 통제가 불가능한 불안정한 금융체제, 과다경쟁과 과잉생산이 초래할 수 있는 무역구조의 왜곡, 적절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 사회부문간·지방간 구조적 이질성(*heterogenidad estructural*)의 심화, 자본·상품·서비스 부문에서 시장 자유화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세계화 부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과 세계화 사이의 모순, 그리고 경제적 세계화에 조응하는 정치적 통치구조의 부재 등을 지적한다(*Secretaría Ejecutiva de la CEPAL 2002, 13-14*).

Ⅲ.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전략

이아니는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과정의 결과 국민국가의 자율적 행동 및 전략은 점점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주장한다. 경제에 대한 국민국가의 개입은 세계화 시대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과정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거나 때

로는 정체, 후퇴 및 왜곡 등을 반복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수준에서 불균등하고 모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때때로 불평등관계 및 적대관계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아니에 따르면, 세계화 과정에는 국가사회와 세계사회에 속해있는 상이한 집단, 계급, 인종, 소수집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적 수준에서 헤게모니가 형성되려면 세계적 수준의 시민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방된 세계사회에는 그에 조응하는 세계 시민사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Ianni 1999, 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제반 국가적 조직형태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며 각기 자기의 특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형성된 새로운 시공간 안에서 국가사회 및 세계사회의 지배관계, 소유구조, 통합 및 적대는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제 개인과 사회, 집단과 계급, 인종과 소수집단, 사회운동, 정치운동, 공공여론의 흐름, 이데올로기, 유토피아 등 모든 정치·사회 현상은 세계라는 공간 안에 모두 공존하며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날 것이다(Ianni 1999, 124). 이아니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모든 발전전략의 구성이나 연대의 방식은 기존과는 상이한 틀, 다시 말하면 세계사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플로레스 올레아와 마리나 플로레스는 자본주의적 세계화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민주적 세계화 및 전지구화'(mundialización o globalización democrática)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저자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종속과 착취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반해, 민주적 세계화는 평등, 정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반면, 민주적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저자들은 '민주적 세계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배제된 경제세력 및 사회세력들이 '자본주의 세계화' 과정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는 전지구적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Flores Olea & Mariña Flores 1999, 12).

한편, 알론소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 및 제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보다는 국민국가내의 투쟁이 더 절실하며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사회적 투쟁의 일차적 공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것이다. 물론 저자도 최근에 세계화의 부작용에 반대하는 투쟁이 비록 국민국가 공간 안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제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는 어떤 나라도 자국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알론소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대륙적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 과제가 많이 존재하고, 대륙 차원의 발전전략 및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제와 모순이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간, 지방간, 국민국가간, 지역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저자는 국제적 프로젝트 및 연대만으론 충분치 않으며, 특히 저발전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주권 유지 및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내적 차원의 독자적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lonso 2002, 429-433).

CEPAL은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의 발전전략은 정치적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건고하고 민주적인 사회협약'이 전제된 상태에서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요소, 즉 1)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2) 구조적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 3) 세계적인 환경 의제를 존중하는 에너지 정책, 4)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적극적 사회정책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ecretaría Ejecutiva de la CEPAL 2002, 106).

CEPAL에 따르면, 20세기 후반기 20여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경제

정책의 최대 오류는 '모든 시장의 최대 자유화'가 경제·사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겼던 점이다. 하지만 CEPAL은 정반대의 논리, 즉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과거 전략으로의 회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CEPAL이 제시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안은 일방적인 시장자유화나 시장보호 전략은 견제하면서, '시장'과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두 경제주체 간의 가장 적절한 결합방식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Secretaría Ejecutiva de la CEPAL 2002, 106-107).

미주자유무역지대(ALCA: Á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에의 참여를 앞두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CEPAL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국가들은 시장 및 무역자유화 확대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품 생산의 증대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수출품들이 점차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경쟁력을 지닌 다양한 수출품으로 대체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대륙내 무역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ALCA는 국가들간 불균등 발전에 입각해 새로운 기준과 제도를 구성할 것이므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은 자국의 취약한 생산구조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경쟁우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CEPAL은 이러한 정책들만 갖고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의 발전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즉, CEPAL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EU)으로부터 두 개의 주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 확대이고, 둘째는 라틴아메리카의 상대적 선진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의 자원이전이다(Secretaría Ejecutiva de la CEPAL 2002, 213).

참고문헌

- Alonso, Aguilar Monteverde.(2002), *Globalización y capitalismo*. México, D.F.: Plaza y Janés.
- Baró Herrera, Silvio(1997), *Globalización y desarrollo mundial*. La Habana: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 Flores Olea, Víctor & Abelardo Mariña Flores(1999), *Crítica de la globalidad: dominación y liberación en nuestro tiempo*.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Ianni, Octavio(1999), *La sociedad global*. México, D.F.: Siglo XXI.
- Saxe-Fernández, John.(1999), “Globalización e imperialismo”. En John Saxe-Fernández (coord.). *Globalización: crítica a un paradigma*.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 DGAPA, Plaza y Janés. pp.9-68.
- Secretaría Ejecutiva de la CEPAL(2002), *Globalización y desarrollo* (<http://www.eclac.cl>). UN: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 Vilas, Carlos M..(1999), “Seis ideas falsas sobre la globalización”. En John Saxe-Fernández (coord.). *Globalización: crítica a un paradigma*. México, D.F.: UNAM,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 DGAPA, Plaza y Janés. pp.69-101.

Abstract

Debate conceptual de la globalización/mundialización en América Latina

Kyeong-Hee Kang
(Cheju University)

El presente ensayo se aboca a ilustrar el debate generado alrededor del concepto de la globalización/mundialización en América Latina asimismo en el Caribe- con la finalidad de ir tejiendo un punto de partida para comprender la tendencia actual de la internacionalización capital y la característica del orden político mundial. Comenzaremos con la revisión de los enfoques propuestos por algunos teóricos latinoamericanos en torno al concepto de la globalización/mundialización y, en seguida, en la segunda sección, presentaremos los términos del imperialismo, la dependencia y la polarización entre otros, buscando conceptos apropiados y realistas para explicar la fase actual del capitalismo mundial. En la última sección se presentarán distintas estrategias del desarrollo de los países dependientes y subdesarrollados como los de América Latina y del Caribe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mundialización.

Key Word: Globalization,(세계화) Latin America(라틴아메리카), Dependence(종속), Polarization(양극화), Developmental strategy(발전전략)